

정숙

■■대안적 보육의 지평 넓히기

- 해외 유아교육의 집중탐색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르프 유아원의 교육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대안적 보육의 지평 넓히기

- 해외 유아교육의 집중탐색

제1차 4. 6(월) 오후 7시-10시

윤선영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르프 유아원의 교육

제2차 4. 13(월)

일시 : 1998년 4월 6일 / 4월 13일

장소 : 대학문화원 강당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후원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제별"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 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

이 주제는 슈타이너 교육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시한 주제를 채택한 것임.

한국방송공사 교육보육본부
평생교육진흥원 유아교육과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일반적 이해 발도르프 유아교육 프로그램

월요일 ~ 목요일 : 서울
금요일 ~ 토요일 : 소방
일요일 ~ 화요일 : 전주
수요일 ~ 목요일 : 광주

발도르프 유아교육보육부

프로그램 순서

발도르프 유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일반적 이해

윤선영 (주요 내용: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일반적 이해)

제1차 4. 6(월) 오후 7시-10시

윤선영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일반적 이해

제2차 4. 13(월) 오후 7시-10시

Wolfgang Sassmanhausen

“체벌”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 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¹⁾

1) 이 주제는 슈타이너 교육에 대한 강연에 앞서 보육교사들이 제시한 주제중 채택된 것임.

보육의 지평을 넓혀 갑시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올해 초,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상설 교육기관인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답답하고 부족함을 느껴왔지만 우리 교사들의 이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해소할만한 교사들의 만남의 장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고자 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교육센터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질 높은 재교육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앞으로 좋은 내용의 강좌를 준비해 열어갈 계획입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첫 사업으로 현재 교육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르프 유아원의 교육'에 대한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슈타이너 교육강좌를 통해 우리 보육현장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강좌는 독일에서 유아교육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시는 윤선영 선생님의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와 독일 도르트문트 루돌프 슈타이너 사범대학장님의 발도르프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와, 좋겠다', '우린 안돼', '시간이 없어', '부럽다'... 이런 단발적인 자극이 아닌, 열악한 우리 보육의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술에 배 부르랴'는 옛말이 있듯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가운데 진행되는 첫 교육강좌에 동료 보육교사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강좌에 독일 도르트문트 루돌프 슈타이너 사범대학의 학장님을 모시게 된 데에는 한국슈타이너협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보육교사들을 위해 배려를 해주신 협회와 슈타이너협회 한국위원이신 허영록 교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일반적 이해

윤선영(독일 베를린대 유아복지교육학 박사과정)

교육의 문제가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문제와 함께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요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한국보육교사회>가 기획한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한국 발도르프 교육예술협회>의 지원으로 슈타이너 교육을 조금이나마 접하게 된 것은 보육교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 보육교사 사범학교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기에 앞서, 슈타이너 교육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약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 필자는 한국에 소개되어졌거나 번역된 자료, 개인적으로 접했던 독일어 자료, 발도르프 유아원 참관 및 교사와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슈타이너 교육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내용을 유아교육에 국한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1. 발도르프 유아원과 학교의 설립

발도르프 교육은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에 의해 창시되었다. 슈타이너는 철학, 문학, 심리학, 과학, 의학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며, 피테와 쉐러의 영향을 받아 철학적 저서 「진리와 학문」, 「자유의 철학」 등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학지의 편집일을 맡기도 하고, 베를린의 립프네히트 노동자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적 수련과 연구를 계속하며 그 생애에 300여권의 책을 낼 만큼 여러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1902년에는 Giordano-Bruno-Bund의 학회활동을 하며 '신지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후에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의식하는 인지학(認知學)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인지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존재로 보고, 교육은 인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의식 형성을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간의 내적 세계를 사고, 느낌, 의지(자아의식, 감정, 행위와 관련됨)로 보고 이를 교육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컨대, 유

오이뤼트미클
최초 오이뤼트미클
(1911)

아기에는 의지가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사고를 강조하는 것은 어린이의 본질적인 발달단계에 어긋나므로, 어른(교육자)은 행위로 보여주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리의 질과 어조의 질이 몸짓을 통해 표현되는 새로운 움직임의 예술인 오이뤼트미클> 만들어 교육 및 치료교육에 기여하도록 했다. 예술활동과 정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건축설계도 하였는데, 그의 건축양식은 자연의 형상에 따른 모가 나지 않은 원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발도르프 학교와 유아원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유아교육
신체중심교육
발도르프
본체16기
상호교육이 특징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4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아스토리아 담배 공장에서의 강연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와 상급학교를 포괄하고 사회계층에 관계없는 12년간의 통합학교를 주장했던 그의 강연에 감명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러한 학교의 설립을 희망했고, 사장인 몰트의 지원으로 공장 내 노동자와 기타 일반인의 자녀를 위한 자유-발도르프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학교 및 교육을 발도르프라고 칭하게 된 것은 이때 공장의 이름을 따 발도르프학교라 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슈타이너는 단기간의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학교 교사를 직접 양성하였는데, 교육은 강연, 토론, 개별적인 대화, 수업참관으로 이루어졌다. 강연은 일반인간론, 기질론, 교수방법론, 교수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그후 1922년 함부르크, 에센, 덴 하에서, 1926년 하노버, 바젤, 1928년 베를린 등 독일 내에 많은 발도르프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학교들은 하나의 연맹을 결성해 공동작업도 실시하였다. 1938년에서 1941년 나치시대에는 8개의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계속 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1923년에 네덜란드, 1925년에 영국 등 여러 나라에 점차 퍼지기 시작하여, 1990년 30여개 국가에 501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발도르프학교의 재건이 활발히 이루어져 1994년 총 60491명의 학생이, 150개의 발도르프학교가 있다.

발도르프 유아원의 경우 1974년 130개(아동수 1,150)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옛 서독지역에 338개가 있고 옛 동독지역에도 점차 세워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는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발도르프 유아원이 1,400여개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발도르프학교와 유아원이 없다.

인본 122
마 프라하에도 있다.

병하고 지붕만 있으면 학교를 만들수있어

2. 슈타이너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인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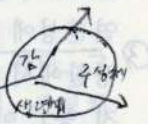
슈타이너는 인간이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7년 단위로 나누어 인간

의 본질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과정에서 4번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모체에서의 탄생(물리적 육체의 탄생), 생명체의 탄생, 감성체의 탄생, 그리고 자아의 탄생을 그것이다.

7~14

14 ~ 20

21 세



1) Physischer Leib(구성체: 물리적 육체): 0-7세

물리적 육체의 특성이 강한 시기로 생명체, 감성체, 자아가 아직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이 학습상황이 되고 생활자체가 곧 학습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본보기)로부터 행위와 모방을 통해 주로 배우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후 1년: 물리적인 공간에서 자주성을 추구하여 공간 속에서 혼자 스스로 서고 걷기 시작한다.

유기가온는서서

생후 2~4세 첫 걸음

9~10세

16~18세

자신의성체중

반영되면서

나를이해

나는종종하는시기

저항기.반항기

자기자신과 외부세계를

경계한다.

외부세계를 주관해서

준거가된다.

완전독립이시작

간헐적놀이시작

순간순간의 규칙을

만들기때때로

순간순간이 다른상황을

변경해서 놀이를 만들어

협동 놀이를 레미콘 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뜻하지 않은 행동은

된다.

② 생후 2년: 영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주성이 형성되어 언어구사능력이 생긴다. 이때 유아의 존재는 온전한 감각기관이 되기 때문에 언어습득은 어른과는 달리 몸에 배듯이 이루어진다. 유아는 완전히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능동적으로 열려있을 수 없고 단순히 들음으로써 자신의 몸으로 익혀, 언어의 본질이나 형성원칙에 대한 본능적인 일체감을 형성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낸다(예; 불규칙 동사를 규칙동사로 사용).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어(예; 엄마) 하나로 자신이 처한 상황, 기분 상태, 요구 사항 등을 표현하게 된다. 유아 자신은 행위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③ 생후 3,4년: 3세가 되면 "나"를 표현하기 시작하며, 무조건적인 모방에서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게 된다. 4세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옆에서"가 아닌 "함께" 주고 받는 놀이와 역할놀이를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이성발달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장애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조형적인 놀이(gestaltendes Spiel)를 시작하여 상상과 함께 체험하는 세계와 그 순간에만 유효한 놀이규칙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예; 나뭇잎이 모자가 되고 배가 된다). 이때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어린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충동은 없다. 이 능력은 바로 자아를 의미한다. 교육자(어른) 자신이 진정한 자신일 때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정체성 추구의 방향을 스스로 찾게 된다.

④ 생후 4,5년: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게 되어 가끔 어른들을 당황하게 한다(예; "오늘 유아원에서 무엇을 했니?", 달의 모양).

⑤ 생후 5,6년: 순간적이고 현시적인 행위에서 지속적인 행위로 변하게 된다.

다. 즉흥성은 점차 사라지고 놀이의 형태는 더욱 사실적이고 체계적이 된다(예; 미로의 그림처럼 주변의 사물들을 그대로 본뜨듯이 그리는데 관심이 있어, 때로는 비행기나 배를 그리는데 어른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물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그러면 죽어?”). 삶에 참여하고자 하여 단체 생활에서 또는 어른의 일을 기꺼히 맡아 해보고 싶어 한다(식탁 차리기, 설거지 등). 이때 “그건 네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것 보다 파제를 주어 유아의 의지력을 키우고 경험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완벽한 수행(결과)을 바라게 되면, 관심이 곧 다른 곳으로·가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된다(끝없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를 돌보려 하는 마음이 생긴다. 세기와 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때 어른이 함께 기뻐해 주되, 그러한 관심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 줄을 그어 주거나 고쳐주면 유아는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특히 기억력이 태동되는 시기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이때 기억력을 강요하면 “생명체”를 조산시키게 되는 위험이 있다. 7세까지는 속성시켜 어른이 되어서 행동력과 의지력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단체생활의 규칙을 어겨보려 하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른(교사)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아가 어른을 실험하고자 도전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유아 스스로가 “사고”와 “의지”라는 양극 사이에서 “일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사고와 행위의 일치를 의미하며, 규범이나 도덕과 관련이 있다. 유아는 사고와 행위의 일체성으로 도덕을 배우고 자신의 기본적인 행동지침으로 삼게 된다. 사고와 그러한 삶의 질을 달성하고자 유아는 어른을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자가, 어린이가 배우듯이 어린이를 통하여 “동일한 정도로” 자신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의 교육은 교육자와 어린이의 파트너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남에 참여하고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⑥ 교육적 환경: 영유아기때의 교육적 환경으로 슈타이너는 공간적 질서와 시간적 리듬을 중요시 하였다. 공간적 질서란 사물이 제자리에 놓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능이 이미 정해진 완벽한 형태의 놀이감들은 어린이의 조형적인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므로, 자연속의 사물들을 이용한다(조개, 밤, 돌, 나뭇가지, 솔방울, 형짚, 널빤지 등). 시간적 질서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말한다. 리듬은 어린이를 감싸서 안정감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유놀이를 한 후엔 자신을 끌어 모으는 집중시간(동화나 이야기 듣기, 리드미컬한 동작, 음악, 역할놀이), 식사, 새로운 자유놀이(정원놀이)를 조

화롭게 연결시킨다.

2) Aetherleib/Lebensleib(생명체): 7-14세²⁾

6,7세가 되면 유아는 그림을 통해 생각을 하고 느낌을 통해 배우게 된다. 그것은 생명체가 물리적 육체로부터 외부세계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체는 기억력을 주관해 주기 때문에 유아는 학교에 들어가도 된다. 학교에 들어간 아동은 신뢰감과 사랑에 의해 공부한다(1학년 아동; “나는 선생님을 위해 썼어요!”). 교사의 세계재현을 통해 아동은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발도르프학교에서 교육은 예술에 흠뻑 젖는 수업, 리듬이 있는 기간수업(Epochenunterricht)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감성체가 태동하기 시작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 경외, 동경심을 갖게 된다.

3) Astralleib(영적 육체: 감성체): 14-21세

개념과 지성을 통해 사고하며, 사춘기를 거치면서 교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만의 판단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엔 전문가인 이상적인 학과교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으며(“나는 이 세상을 원하지 않아”), 약물이나 폭력과 같은 하위문화가 생길 수 있다.

4) Ichleib(자아): 21세

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 즉,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유로와 진다. 세계를 자신의 상대로 바라보게 되며 자립적으로 대처한다. 물리적 육체, 생명체, 감성체를 객관화 시키고 자신만의 생애를 가꾸어 가게 된다.

3. 발도르프 유아원을 위한 교사교육

발도르프 유아원을 위한 교사교육은 정규 유아원(Kindergarten)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와는 달리 특별한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르트문트의 루돌프 슈타이너 사범전문학교(Rudolf Steiner Erzieher-Seminar Dortmund)의 교사교육과정을 소개하겠다. 이곳의 교사교육은 정규 사범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을 슈타이너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슈타이너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정규 유아원에서도 교사로서

2) 학령 이전의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7세 이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고, 반대로 정규 사범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일정한(4-5주) 재교육을 받고 1년간 실습을 한 후 발도르프 유아원에서 일할 수 있다. 슈타이너 사범전문학교는 유아원 교육을 위해 지역(Nordrhein-Westfalen)의 발도르프 유아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아원, 방과후 그룹(Hort), 청소년 복지그룹을 위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2학년 때 이 분야 중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전공분야에 따라 교수법에 대한 수업과 실습지도를 받고 실습장소도 정하게 된다. 2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국가에서 규정한 졸업시험을 본 후, 1년간의 직업인정실습(Berufsanerkennungsjahr)을 해야 하는데, 실습기간 중에는 4주의 실습지도 세미나가 동반된다.

입학자격은 (실업)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현장경험이 필요하다. 현장경험이란 최소 2년간의 실업전문교육, 또는 최소 1년간의 사회교육기관(유아원, 청소년 복지시설, 등) 근무경력(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6개월만의 현장경험을 요구한다)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입학 지망자는 개별면담을 통해 직업 선택에 대한 동기를 설명해야 하므로, 20세 이상이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입학 지망자들에게 발도르프 교육(또는 기관)에 대해 알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슈타이너 사범전문학교의 교과목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범전문학교를 위한 목록에 준하는 교수법, 교육학, 정치와 역사, 아동 및 청소년문학 독일어, 예술 교육과 의학교육, 음악교육, 놀이교육, 생물학과 보건교육, 스포츠와 운동교육, 법학과 행정학으로 정해져 있다. 슈타이너 사범전문학교의 교육특징으로는 예술 과목에 오이르트뮈(Eurythmie)가 속해 있으며, 예술교육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바로 예술교육에 교사의 인격을 형성하는 길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년마다 1주간의 예술여행 또는 학술여행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목의 수업은 기간형태 또는 코스형태로 진행된다. 각 과목은 장기간(대부분 3주)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0분동안 지속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8시 10분에서 15시 30분까지의 하루 교육시간 중 대략 4개의 과목코스가 진행된다. 이러한 수업형태의 장점은 각 과목이 매일 달라지는 산만한 일반 수업형태보다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사고적, 예술적, 실제적으로 조화된 형태가 영적 위생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짜임새”라는 점이다. 이러한 수업형태는 또한 과목을 초월한 프로젝트식 작업도 가능하게 해 준다.

실습교육은 네 개의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실습은 5-6주의 기간을 갖는다. 세 개의 실습은 전공분야에 따라 발도르프 유아교육기관 또는 기타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한 개는 특수교육시설이나 고아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중 앞의 세 개의 실습은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습동안 직접 방문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

4. 발도르프 유아원

1) 유아원 교육

발도르프 교육은 첫장에서 언급했듯이 슈타이너의 인지학 즉 인간 안에 숨어있는 자연(본질)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가 분류한 첫 번째 7년 단계는 유아원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단계는 이후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근거가 된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에는 모범(본보기)과 모방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이 유기체의 구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제 2장 참조). 영유아는 감각적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방어벽 없이 주변의 모든 것(색, 형태, 소리, 성인의 행위 등)에 일체가 된다. 그러한 주변환경은 기쁨으로, 싫증으로, 인과적으로, 또는 자국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발도르프 유아원의 교사는 영유아에게 모범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모방을 위한 환경은 1. 전인적인 경험을 하고 이해하며 모방할 수 있는 환경, 2. 이야기 듣기와 놀이로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 3. 교사의 모범으로 도덕적 질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4. 리듬감 있는 반복적 활동으로 특별한(축제나 의미있는 날) 노래와 놀이로 주변세계를 경험하는 환경, 5. 단순한 놀이자료(자연물)로 내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환경, 6. 그림, 만들기(점토와 같은 조형작업), 노래, 오이르트뮈, 운무(Reigen; 노래를 동반한 춤) 등으로 경험과 조형의 힘을 촉진시키는 환경, 7. 자유놀이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지성, 환타지, 경험, 수(손)작업 능력, 사회적 행위 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환경구성은 영유아의 “사고”, “느낌”, “의지”를 키워준다. 주요활동의 특징은 각 유아원마다 나름대로의 정한 교육구상(Konzept)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발도르프 유아원의 주요 교육활동 내용은 우선 “자유놀이”와 교사의 창의적인 “활동제공”의 균형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주요 그룹활동으로는 그림과 조형작업, 이야기 듣기, 노래, 야외 나들이, 자유놀이 등이 있다.

그림은 주로 수채화를 이용하는데, 어린이들은 넓은 붓으로 색깔놀이를 하며 색과 일치되는 내적 경험을 촉진해 주고, 결과에 대하여 느낌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색깔은 노랑, 파랑, 빨강이 주어지며, 서로 섞임으로 여러 가지 색을 창조해내도록 한다. 가끔은 예술가를 초빙하거나 방문하여 동화를 연상하며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거나 스스로 그려보기도 한다.

이야기 듣기는 교사가 동화를 책이나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림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동화에는 몇가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그것은 인간과 현실세계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선과 악(영웅과 악인 또는 선함과 잔인함), 지상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 슬픔과 기쁨 등의 양극이 등장한다. 동화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은 동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세계와 일치감을 가지는 어린이들과는 달리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동화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화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동화의 유형은 어린이들의 특성과 기호와 어울리는 삼울행(예; 옛날 옛날 옛적에),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1차원적 세계(현실과 비현실이 일치된 세계), 시작과 끝의 전형적인 유형, 시적 표현("Der Wind, der Wind, das himmlische Kind"), 주인공 어린이의 고립성(어린이들의 혼자 스스로 해 보고 싶어하는 욕구와 일치한다), 열악한 영역(공감(Sympathie)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바보스러운 자에게서 나온다는 원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이야기를 1주일간 계속 들려주어도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항상 발휘된다.

노래는 교사의 선창, 함께 부르기, 어린이들만 노래 부르기, 악기(Leier를 주로 사용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부르기 등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주로 하게 한다.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어린이들의 리듬감과 반복성에 일치한다. 잘 알려진 노래라도 어린이들이 음과 가사를 스스로 자유롭게 부르게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다. 노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 느린 노래를 신체의 움직임과 동반하게 되면 음의 높낮이를 신체와 일치시킬 수 있다(예; Reigenspiele). 이때 오이르트뮌을 첨가시키기도 한다. 동화의 이야기를 리드미컬하게 오이르트뮌로 적용하기도 한다.

야외 나들이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교육적 관점이 있다.

자유놀이에 대하여 슈타이너는 어른들의 규칙과 교육적 의도를 피하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힘에 놓아 두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힘에 놓여 두게 되면,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고, 자신의 의지를 행위로 옮기고, 어른의 교육적 영향에 의한 현상과 전혀 다른, 놀이를 통한 스스로의 교육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자유놀이에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놀이감은 생동감 있는 물건(예; 줄, 형짚)들이 개인적인 원리에 의해 작업을 하는 물건(예; 적목)을 제공하는 것 보다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해적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행위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감은 이미 놀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수록 어린이들의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행위를 시도해 보게 한다. 제공된 작업이 외부의 세계를 내부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라면, 자유놀이는 내부의 세계를 외부로 미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것은 내적 세계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성을 기르게 됨을 의미한다. 어른이 자유놀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어린이들의 기질을 파악하고 기질에 적당한 놀이(느린 아이는 느린 놀이, 산만한 아이는 빠른 놀이)를

하게 하며 점차 다른 놀이를 하여 기질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권한다(어린이 기질에 반대되는 놀이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실수라고 슈타이너는 주장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성은 기억력을 강요하는 공부를 멀리하고, 예술적으로 자극하며 놀이를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고유의 재주와 본성(인간의 본질)을 이끌어 내어주고, 육체적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더욱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배울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의 인생에서 요구되어지는 힘과 건강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부모와 교사의 협력작업

부모와의 협력작업은, 유아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교육적 의문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4주에 한번씩 열리는 부모회로부터 시작한다(부모회의 횟수는 각 유아원 마다 조금씩 다르다). 부모회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가 다루어지는데, 어린이들의 사회적 관계, 심의회(Beirat)에서 다루어진 조직적인 문제(축제와 같은 행사조직 등) 등이 있다. 각 그룹에 2명의 부모와 교사들이 심의회의 일원이 되며, 부모회에 제의하게 될 테마를 정한다. 특별히 관심있는 교육적 테마(예; 회화, 조소, 오이르트뮌, 수공예 등)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모를 위한 강연을 듣기도 한다. 유아원의 교사들은 발도르프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료합의체(Kollegium)"에 의하여 원장, 원감이 있는 종적인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다. 단 대표를 두고 돌아가며 행정적인 일을 맡아하고 있다. 발도르프 유아원의 운영자(설립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비, 예산편성, 집세 등에 대하여 의논한다. 그외 전체중역회(erweiterter Vorstand; 세명의 부모대표, 세명의 교사대표, 세명의 운영자 대표로 구성됨), 교육협의회(Paedagogische Konferenz; 매주 한번씩 열리며 교사 및 보조교사 등이 참석), 심의회(위 참조)가 있다.

3) 발도르프 유아원의 하루 일과

유아원의 하루일과는 어린이들의 본래적 리듬에 맞추어 짜여지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다음에 한 유아원의 하루일과계획과 주간 예술 및 특별활동계획을 들어 보겠다.

<하루일과 계획>

7:00 등원, 교사와 만남(인사와 간단한 일상 대화)

7:30- 9:15 자유놀이, 간식준비, 또는 작업, 기념일이나 축제때 연관된 활동

9:15- 9:45 정리정돈, 손담기

9:45-10:00 리듬있는 놀이(Reigenspiel)

10:00-10:20 간식, 실외옷 입기, 신발 갈아신기

10:30-11:30 정원에서 자유놀이, 모래놀이, 공놀이, 줄넘기 등

화단 가꾸기, 풀베기, 잔디밭 가꾸기, 공원 산책하기

11:30-11:45 실내화로 갈아신기, 손담기, 인형 준비, 이야기 코너로 모인다

11:45-12:00 극화놀이, 이야기 듣기

* 오전반만 있는 경우 이러한 유형으로 하루를 보내고 종일반은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자유놀이와 원형활동을 하고 각자 집으로 가게 된다.

〈주간예술 및 특별활동〉

- 물감으로 그림그리기

- 오이르트뮈

- 점토작업

- 대청소, 놀이감 정비

* 이와 같은 발도르프 유아원의 하루일과와 주간 특별활동은 단순히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하루일과와 주간활동은 유아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날씨와 계절, 축제와 같은 것과 연관지어 계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각 그룹 어린이들의 그날 그날의 상태와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어, 교사의 주의깊은 영유아 관찰과 창의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4) 필자가 발도르프 유아원 참관하고

필자는 베를린에 머무는 기회를 이용해 한 발도르프 유아원을 방문하여 하루일과를 참관하며 어린이들이 낮잠자는 시간을 이용해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그곳에서 보고 느낀 점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실내 환경은 모든 발도르프 유아원이 그렇듯이 나무로 된 벽재와 가구며 놀이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각 교실에는 계절을 상징하는 계절상(Jahrestisch)이 꾸며져 있었으며, 방문한 유아원의 특징이라면 화장실, 사무실, 교실 어디에도 거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였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세상에는 자신을 반사해 보고 고치게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는 교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거울을 없앴다”고 했다. 교실에 안내되어 들어가니 마침 교사들과 아이들은 향기나는 주머니를 만들고 있었다. 발도르프 유아원에서는 방문자도 항상 함께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기나는 주머니

는 주머니를 꿰매어 그 속에 향기나는 마른 풀을 넣고 아플 때 베게 옆에 놓고 잠을 자게 되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라이젠슈필을 할 때엔 교사의 노래와 움직임을 어린이들이 따라 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투는 아이는 보조 교사의 무릎에 앉아 있도록 했다. 낮잠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서로 베개를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교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 개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며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 교사는 아이들의 컨디션에 주의하며 그날 그날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했다. 산만하거나 들떠 있으면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와 춤으로 시작하여 차츰 조용한 놀이로 유도하고, 그 반대이면 조용한 것에서 점차 즐거운 놀이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원 나름대로의 컨셉트를 설정하고 모든 교사가 또 각 그룹을 위한 교육적 구상을 하며,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고 있어 그것에 어울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각 반의 활동은 교사들의 창의적 구상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었다.

5. 질의 및 토론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고,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시사점이 있다면 연결시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의문점들을 모아봅시다.

질문1) 발도르프 유아원에서는 정리·정돈을 교사가 하는데 그러면 너무 방임이 되지는 않나요?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신 슈나يدر 박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교사가 모범을 보이며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할테고, 내일 안하면 모레 할 것이니 아이들이 따라할 때까지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스스로에 의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질문2) 교실의 크기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실의 크기는 우리와 비슷하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3-5세의 혼합연령에

1.3:15 정도)도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다. 필자가 방문한 곳에는 보조교사나 실습생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발도르프 학교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에서 운영되는 학교보다 비율이 높기도 하다. 왜냐하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교사가 얼마만큼 아동을 이해하고 내적인 관계를 갖는가가 중요하지, 아동의 양적 숫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발도르프 교육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다.

질문3) 발도르프 유아원의 일과 중 낮잠 자고 일어난 아이들의 오후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발도르프 유아원이 예전에는 오전반만 운영했으나 요즘은 영아반부터 방과 후까지 다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아반부터 혼합연령을 구성하는 것과 중일반 운영을 위한 교육내용의 고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독일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보자.

오후 3-5시 사이에 아이들은 집으로 간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 3시쯤 되는데 3시 이후에는 원형활동(Kreis)이나 자유놀이가 이루어진다.

질문4) 발도르프교육에서는 한 교사가 오랜 시간 담임을 맡아 가르친다고 하는데 유아원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 대부분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0-2세, 3-5세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바뀔 이유가 없다.

질문5) 아침에 등원하는 시간이 아이들마다 다를텐데 아침 식사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아침 식사는 식사 시간 전에 교사와 아이들이 빵 만들기, 과일샐러드 만들기, 잼 만들기 활동 등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한다.

질문6) 영아의 미술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저는 활동 시간에만 재료들을 꺼내 주었다가 활동이 끝나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인 독일 유아원의 풍토를 보면 항상 아이들 손에 닿는 곳에 재료들이 있다. 발도르프 유아원의 영아반의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3-6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놓여져 있다. 아마 영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발도르프 교육을 “교육예술”이라고도 표현한다. 예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을 특기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한 피아노와 같은 악기 터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예술적인” 또는 “예술을 통한” 교육을 한다. 예술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질문7) 유아원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심의회에서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 간에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한 뒤 결정을 한다. 커다란 테마에 대한 계획은 전체 교사가 함께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각 반 교사가 그 반에 맞게 독창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발도르프 교육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각의 발도르프 유아원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발도르프 유아원의 하루 일과를 소개했는데 이 하루 일과는 그 유아원만의 일과이지 전형적인 발도르프 유아원의 하루 일과로 생각하면 안된다.

질문8) 장애아 통합교육의 목적과 장애아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은 어떠한가?

장애아에 대한 슈타이너 교육이 아주 의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슈타이너는 실제로 한 장애아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그 장애아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교사 사범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 장애아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 더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질문9) 발도르프 유아학교를 특화된 계층이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도르프 유아원은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독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부모의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모님의 수입이 적을 경우 나라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발도르프 학교는 이상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기를 꺼리기도 하고, 반대로 좋아하기도 한다. 실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전혀 다르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발도르프교육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다.

질문10)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다.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에 발도르프 교육이 전파되어 있는데, 각 나라마다 교육내용이 다르다. 질문의 전제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이라는 하나의 상(想)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교육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교육은 기본 철학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슈타이너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안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규 학교를 위해서 기존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육 방식을 받아들여 국·공립학교에 적용을 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속초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그 학교는 대안 학교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 교육에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슈타이너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도르프 교육을 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는 입장은 두가지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탈피되는 불안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신물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슈타이너 교육을 보자. 지금까지 질문 나온 것을 보면 슈타이너 교육을 중심으로 질문이 나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한 그 문제를 슈타이너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한국적인 슈타이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나름이지 된다/안된다, 희망적이다/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 임영희(역), 슈타이너 학교의 감성교육, 고야스 미치코, 밝은누리, 1997.
 광노의, 독일의 열린학교: 자유 발도르프 유치원. <21세기 열린유아교육>, 열린유아교육협회, 1997.
 한국 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 발도르프 교육의 이해, 1997.
 Beichler, C., Die ersten sieben Jahre im Leben des Kindes, Novalis, 1992.
 Grundelius, E. M., Erziehung im fruehen Kindesalter, Novalis, 1994.
 Kutik, C., Spielen mit kleinen Kindern,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96.
 Rudolf Steiner Erzieher-Seminar Dortmund, Eine Sonderausgabe fuer die Bewerbung um die Aufnahme vom Rudolf Steiner Erzieher-Seminar.
 Ruf, B., 청소년기의 발도르프 교육.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 1996.
 Sassmannshausen, W., 미취학 연령의 유아들을 위한 발도르프 교육.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 1996.
 Sassmannshausen, W., Das Konzept der offenen und freien Erziehung im Waldorfkindergarten. <21세기 열린 유아교육>, 열린유아교육학회, 1997.
 Schaufelberger, H., Maerchenkunde fuer Erzieher, Grundwissen fuer den Umgang mit Maerchen, Herder, 1987.

“체벌”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 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³⁾

강사 ; Wolfgang Sassmanshausen

(도르트문트 루돌프 슈타이너 보육교사 사범대학장)

통역 ; 윤선영(독일 베를린대 유아복지교육학 박사과정)

한국의 동료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윤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여러 주제들 중에서 ‘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도르프교육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 있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아주 예쁘고 귀한 화분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분은 교사(혹은 엄마)가 가장 아끼는 화분이었습니다. 엄마나 교사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이를 한 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는데요, 한 남자 아이가 교사에게 와서 “어떤 아이가 때려요.”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별로써 항상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 가해아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예로,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차를 멈추고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와 보니 자동차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예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화분을 깬 경우였지요? 그 경우에 무엇이 체벌의 동기였을까요? 그 동기는 어른에게 깨졌다는 사실이 가장 감정에 와서 닿았다는 사

3 이 주제는 슈타이너 교육에 대한 강연에 앞서 보육교사들이 제시한 주제중 채택된 것임.

실입니다. 그 어른이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에게 그 화분이 아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한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던 경우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의 체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동기였습니다. 세 번째의 주차위반 딱지 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내면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지요. 여기서 자동차를 세워도 되고 저기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규칙이지요. 누군가 그것을 어긴다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가지의 경우는 모두 인간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가지 체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교육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체벌은 아주 다른 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체벌의 동기가 체벌을 당해야 되는 아이 자체에게 있다면 그것은 교육적인 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와 상관없이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체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지 교육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중심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체벌은 교육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슈타이너 교육철학; 편집자 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로 허구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그냥 생각해 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 보셨거나, 오늘 저녁이라도 경험할 지 모르는 예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에 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 보니, 제가 거꾸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깜짝 놀라겠지요. 그리고 ‘불프강, 너는 참 바보야’하고 내 자신에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빨리 되돌아 갈 수 있는 차를 타야 하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린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나는 알아 차리게 되고 그걸 내가 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교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추론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 심리학적인 영역에는 세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을 인식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사고능력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것과 나 자신과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은 나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인지적 측면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교정을 하려고 하는 행위

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측면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의지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잘못 탄 예를 좀 더 추론해서 이야기하자면, 나같은 외국인을 위해 한국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쓰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측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인으로써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된 측면이 나타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나와 상관없이 떨쳐버리거나, 그것은 바로 나야, 내가 한 것이야 하고 그냥 나 자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신과 동일화시키면서 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나를 동일화시켜서 내 자신이 행한 행위라고, 내 자신을 강하게 인식하는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른들은 행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거기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아직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이를 대해서 대신 해 주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벌을 통해서 어린이가 아직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어린이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다릅니다.

학령 이전의 어린이들을 놓고 살펴봅시다. 한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라든지 유아원에서 교사가 아주 즐겁게 자기의 직업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고 있다든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어린이들은 그 상황에서 어른의 주변에서 상상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너는 이 놀이를 해라 너는 저 놀이를 해라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놀이를 멈추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 상황을 다시 재현하자면, 어린이들은 아주 비밀스럽게도 어른들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환타지를 가지고 놀고 있지만 그 행위는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교사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린이들의 의지는 주변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언젠가 방학 때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래사장에 인형극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지어졌습니다.

주인공 인형이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어가 주인공 인형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주인공 인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어린이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이 반응할까요? 모든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조심해, 조심해'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학령 이전의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0-7세 어린이들에게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7-14세 아이들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느낌이 나타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을 모독했습니다. 그것을 부모나 교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어른은 '너 도대체 어떻게 한거니?'하고 물어보겠지요. 그 다음에 '너,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라'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말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다면 고쳐쳐야겠지요. 이 경우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의 영역입니다. 어른은 선의로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의지에 작용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학령의 아동은 7-14세 아동을 이야기하는건데 13,14세가 지나면 사춘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가 학령 이전의 아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유럽에서 겪은 경험이 한국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춘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느낌의 영역을 개입하게 되면 아이들은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내면적인 세계와 어른들이 연결되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약물 중독과 같은 경우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느낌에 대해 개입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 영역을 나누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그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아이는 어른과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의지영역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체벌의 동기는 어린이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두가지 아주 재미있고 서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는 발도르프유아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가지 예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적목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어린이가 와서 적목으로 다른 아이를 칩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어른의 반응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놓습니다. 맞은 피해자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가해자

어린이를 붙잡고 '나를 따라 와'합니다. 교사가 어린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손을 한 번 봐라. 네 손이 벌써 네 말을 만들었구나. 네 손을 도와주어야겠구나' 하고는 오늘 점심에 먹을 사과를 함께 깎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교사가 가해 어린이와 피해 어린이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피해 어린이를 위로해 줍니다. 가해 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놀게 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 상황에서 가해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 그룹 작업(라이젠슈필)을 합니다. 그날 할 라이젠은 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봄에 태양이 지상에 있는 꽃과 나무를 피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역할놀이가 가미되어, 아이들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연습을 통해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할을 정합니다. 그런데 태양역할을 교사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제스처는 태양은 사랑과 따뜻함 등을 지상에 있는 꽃과 나무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내용의 시를 낭송하면서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아까 친구를 때렸던 어린이가 태양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 교사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태양해'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는 아무 생각없이 교사가 태양을 맡으라고 하니 아까 교사가 했던 것처럼 태양이 되어 제스처를 합니다.

이 두가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가 반응한 것은 바로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림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교사는 벌써 그 어린이가 한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이의 말을 종종 잘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나치게 활발하고 거칠어서 그것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걸 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왜 거친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벌은 어린이가 한 행동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아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체벌의 동기는 이 손이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손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해서 이 손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 동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성숙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사고·느낌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행동을 고치게 되지만 이 어린이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른으로써 그 어린이 옆에서 어린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가 사과를 깎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얼마나 내가 어른으로서 내면적으로 어린이와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는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어린이들과 동행해서 그 과정을 잘 거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룹에서 한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아이는 아이가 유아원을 그만둘 때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내면적인 동행이 일어날까요? 내가 진정으로 어린이의 동기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는 교사로서 완벽한 교육적 구상이 생겨서 그것을 한쪽에 치워놓고 있어도 될만큼 완벽해 질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시적인 사건에만 집착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계속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사인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됩니다. 그 상황은 교사와 어린이들간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세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사와 어린이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앞에서 어린이들의 동기가 어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했었지요? 어린이들이 내면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동반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교사는 열려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에게는 쉽게 열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수수께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동반하는 관계가 정말 어려운 때가 많은데 그 기술은 연습을 요하는 기술일 때가 많습니다. 그 기술은 내면적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과정을 동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내면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연습을 하는 동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도르프유아원에는 연습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인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우리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떠올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모든 아이가 아이 하나하나마다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를 떠올리며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항상 두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내 감정이 들어있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그 아이는 미운것만 해!), 이럴 경우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대체 그림이 잘 안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아이가 모래상자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애가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누구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이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그 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이는 모래상자 옆에서 노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모래성을 쌓았는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이 안나는 부분을 내가 상상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다시 가서 그 아이를 본다면 내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명상(Medit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교사의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벌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내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한다면 동시에 내 자신의 내면적인 능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어린이는 분명히 교정이 필요합니다(교정도, 체벌도 필요없다면 아이가 아니겠죠). 어린이에게 행위의 규범을 한꺼번에 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간의 개별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컨셉트와 관련지어 체벌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여기 완벽한 목적의식,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 완벽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교사가 있어요. 이 경우 교사는 우리반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은 힘의 남용입니다. 나도 어린이의 경우라면 분명히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동료 교사나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금방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면적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거야’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주변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고 있고, 어린이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떤 관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자리에 앉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며 일일이 아이들에게 지시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규범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는 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범만이 중요하기 때문에(비인간적) 그 자리에 그 교사가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교사가 서서 똑같은 규범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교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교육이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두번째 모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은 특별한 생활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고, 어떻게 의자에 앉는지 이런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앉는지는 직업적으로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지는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활공간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습관(Gewohnheit)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습관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습관이 좋고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생활공

간 안에 아이들이 옵니다. 이 두 번째 모델이 발도르프 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내가 어른으로써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능적으로 잘 맞는가?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다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내(교사) 습관대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것(습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항상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손님으로 한 유아원을 방문하여 교사와 아이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씨리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같이 앉았고 나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어린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너 혼자 그렇게 먹으면 안돼. 의식을 치루고 먹는거야’하며 놀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저만을 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경우 어린이는 의식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교사가 형성한 습관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의 어린이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그런 의식없이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그 경우 의식과 상관없이 먹는 어린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런 습관 안에서 모두 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런 의식없이 먹는다면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어린이는 정말로 교사가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과 자신의 생활양식을 일치시키기에 앞서 그것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의식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규범, 규칙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자극을 해서 교사의 생활양식을 검증하는거예요. 그것을 현대의 용어으로써 표현한다면 “문제아”라고 하는데 그 문제아와 교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80년 전에 발도르프 교육학을 창시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내가 만일 어린이들에게 항상 그건 하지마, 그건 해서는 안돼,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교사가 완벽한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덕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교사)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질문1) 앞의 이야기에서 친구를 때린 아이에게 체벌을 준 예 중에 두번째의 경우 가해자인 아이가 공동그룹작업에서 태양 역할을 맡았는데 아이가 과연 그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체벌의 예에서 보충설명을 잊었었는데, 그 예는 첫 번째 것과 달리 그 어린이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가정이 불안정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 보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면 반응이 오지요. 반응이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공격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다른 아이를 자극을 해서 사랑을 못받으면 다른 감정적인 반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피해 아이의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그리움은 원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때 어른이 바로 어린이 곁에 서게 됩니다. 그 어른은 그 어린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의 영역에서 교정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어 다른 어린이들에게 태양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순간 교사가 '네가 오늘 친구를 때렸기 때문에 너는 태양을 맡아야 해'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는 태양의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화를 시키는 말이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2) 저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하신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인 것 같은데, 좀 더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는 3-7세 아

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영아에게나 유아에게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교사의 원칙은 행동규범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서 영아나 유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대학의 교수든지 간에 유아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인 내가 교사로서 결정할 일입니다. 다른 예를 짧게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유아원이든 학교든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몇몇의 교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사가 말하기를 '실수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언제나 실수는 반복해서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요구하는 규범 안에서의 생활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나의 진정한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사로서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조금씩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을 찾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 가는 것은 인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번지르한 이론이나 주장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행위적 규범을 정해 놓은 교육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를 읽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학령 이전 어린이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학령 이전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 그 당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폭탄이 떨어져서 지하실에 가서 숨었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 나는 무섭지 않았어. 나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거든.'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구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교육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인간적인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이며 발도르프 유아원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짜게 됩니다. 물론 일

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생활양식이 거기에 속합니다. 내가 만든 생활양식은 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교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젊은 교사가 나이가 지긋한 교사에게 '아이들과 어떻게 정리정돈하며 지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교사는 '자유놀이가 마쳐질 시간이라 생각되면 나는 내가 하던 일을 접어두고 창문을 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리할 시간임을 알고 정리정돈을 시작합니다. 늘 해왔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젊은 교사가 일하고 있는 유아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사가 자유놀이가 끝나야 할 즈음에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자, 6살 쯤 된 아이가 교사에게 와서 '창문 좀 닫아주세요, 추워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문을 여닫는 방식은 나이 많은 교사의 생활양식이니 젊은 교사의 생활양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3) 강사님께서 만약에 발도르프 유아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교육구상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유아원에 갈 때마다 나는 항상 어린이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 나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평가인데 바로 이 부분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하는 concept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아주 개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 한다면,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우리 그룹의 나와 어린이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과의 작업도 교사들과의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세히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 록

◆ 발도르프 교육 관계 문헌

- 발도르프교육, 세계 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 1996. 8. 비매품
- 발도르프 교육 자료모음, 한국 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1997. 8. 비매품
-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출판사 '밝은누리'
- 슈타이너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출판사 '밝은누리'
- 슈타이너 학교의 감성교육, 출판사 '밝은누리'
-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 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
-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강상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한국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 (대표 허영록 박사)

전화 0331-280-3764, 283-8650
 전송 0331-280-3876, 38-8965
 주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537
 천리안 HOHROK

<이런 일을 합니다>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 한·일보육교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활동
-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 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 월간 '우리네아이들' / 보육관련 자료 / 책자 발간
-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 보육관련 정보제공 천리안 go baby
- ☐ 하이텔 go bebo
- ☐ 유니텔 go bebo
-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 보육종사자 교육
-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75-8505 / 전송 02-275-8506 / 천리안, 나우누리 KDTA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68-3954 / 전송 02-271-1548 / 천리안 KDIRC

대안적 보육의 지평 넓히기- 해외 유아교육의 집중탐색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르프
유아원의 교육

발행처/한국보육교사회
발행일/1998년 4월 6일
발행인/정희연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75-8505 / 전송 02-275-8506 / 천리안, 나무누리 KDTA